

## 1970~80년대 대학교 교지 소재 번역 시(translated poetry) 연구\*

정경은\*\*

**Kyeongun Chung (2021). A study of student translations of foreign poetry published in university journals in the 1970s and 1980s.** *In college students' journals in Korea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translations of foreign literature into Korean were steadily published, even though they were small in numbers and were not creative literature. In my previous three studies, I examined translated foreign poems published in the college student journal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in the 1950s and 60s. In this study, I survey and examine the translated literature of college journals in the 1970s and 80s.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ranslated poems published in the student journals in the 1970s and 80s was that they were mainly realistic and resistant poetry. It was because young students at the time showed interest in the reality of the people and liked reading the poetry of resistant poets. This also affected their choice of translating foreign poems. That is, when selecting foreign poems to translate, student translators preferred poems that criticized social injustice and that had a focus on the life and suffering of the people.*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student translation of foreign poetry, which had been steadily continued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decreased rapidly since 1985. The main cause of this is the influence of the heated student movement since the mid-1980s. Students in those days were more interested in society than literature. And it was a chaotic time when students couldn't enjoy romantic and sentimental literature.*

\* 본 연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For that reason, the proportion of literature in student journals at that time was significantly reduced, the translated literature.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translation of foreign poetry of student journals reflected the students' views on history and the society of their tim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Keywords: university journals, translation, 1970~1980's, students movement, resistance, realism**

**주제어: 대학교 교지, 번역, 1970~1980년대, 학생운동, 저항, 사실주의**

## 1. 들어가며

대학생들이 편집하고 발간한 교지에는 창작문학보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해방 전에도 전쟁 후에도 그리고 1980년대까지 번역 문학이 꾸준히 실렸다. 번역사 연구는, 어떤 역사적 번역(historical translation)이나 시대를 선정하여 연구하든지 간에 번역의 역사 자체의 구성과 번역을 통해 특정 역사적 사안이나 시대를 이해하는 두 가지 목적 모두에 기여(최효은 2016: 40)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전 3차례의 연구에서 해방 전과 1950~60년대 교지에 실린 번역 시 연구를 진행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교지에 실린 번역 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가 2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묶어서 연구한 이유는 1980년 후반 이후로는 번역 문학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1970년대 이전의 시기는 사전 연구에서 특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본고는 전 시기를 이어 1980년대까지 학생 번역 문학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대학생들이 발간한 교지에 실린 학생번역 문학의 특성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1970~80년대 교지에서는 이전의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번역대회, 번역문 모집공고와 같은 번역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영어영문학회에서 번역 문학 콘테스트<sup>2)</sup>를 열었고, 『새아름』 1(1977)<sup>3)</sup>의 「학교소식」을 보면 번역대

---

1) 해방 전, 학생들은 영미시에 관심을 보였고, 1950~60년대 학생들은 영미시의 경향, 그리고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계열의 시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했다.

2) 로버트 브로크의 원작 「The Man Who Looked Like Napoleon」의 번역문은 영어영문학회 주최 제 2회 번역 문학 콘테스트에서 입선된 작품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학회의 추천을 받아 게재한다. - 「편집자로부터」, 『중앙문화』 8호(1972), 300쪽.

회가 있었다는 기사(217쪽)로 보아 학교차원에서 번역대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하』 21(1989)에 게재된 서머셋 모음의 「The Kite」는 자하문학상 번역 부문 ‘가작’을 수상한 작품이다. 그리고 수상한 작품 외에 다른 학생의 번역문 「안개속의 열차」를 따로 게재하였다. 문학상에 번역부문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번역을 중시했으며 문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새별』 27(1989)에는 번역문을 모집한다는 공고(154쪽)가 있다. 1989년 즈음에는 창작문학의 분량이 줄어들고 번역 시가 한 편도 보이지 않지만 번역문을 모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텍스트는 외국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지만, 한국 시인들의 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영역시 특집을 마련한 『동국문학』 5(1972)에는 동문시인의 영역(4)시가, 『서울여대』 4(1974)에는 서경덕의 한시 「독서유감(讀書有感)」을 한글로 번역한 시, 『외대』 13(1978)에는 윤동주의 시를 불어로 번역한 시, 『경기』 17(1982)에는 한국 학생의 영시 「One day」가 실려 있다. 번역이 학생계의 한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1950년대 연구에서 일본어로 된 외국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중역의 문제(정경은 2020: 93)를 논의했다. 이전 시기에서는 학생이나 교수가 중역을 문제 삼은 글은 없다. 중역의 문제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일문과 학생 김승동은 폴란드 작가 Henryk Sienkiewicz의 「아스핀 월의 등대지기」를 번역한 후 일본어로 번역된 폴란드 문학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중역에 대한 고민과 번역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번역은 반역이다. 최고의 번역이라도 언어가 다르므로 1/2. 남은 것에서 생활습관이 다르므로 또 1/2, 결국 1/4만이 가능치다. 두 언어 중 꼭,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거의 없다. 번역의 대가인 삼오당 김소운 선생의 이 말에도 감히 번역을 한 이유는 읽는 분들이 느꼈으리라. 이 말이 맞다면, 폴란드의 원작을 읽어본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중역한 이 글은 겨우 1/16이다. 그것도 서투른 내 손에서랴! 무슨 아니러니일까? 우리 글을 빼앗은 나라의 언어로 된 글로써 국어의 귀중함을 그린 이 글을 번역한 것은, 지난 82년 교과서 파동으로 시끄러웠던 여름에 박훈주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옮겼다. 떠도는 자의 슬픔이나 차치하고라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모국어의 마력을 우리는 느끼

3) 앞으로 본문에서 인용하는 모든 교지의 발행기관은 뒤 참고문헌에 밝혔다.

4) 조지훈의 「낙화」를 「Falling Blossoms」로,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을 「A sunflower epitaph」으로, 한용운의 「복종」을 「Obeying」로 번역하였다.

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이 타산지석이기를 바란다. 무릇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도 국어를 위한 것임에 - 김승동, 『후기』, 『영광문화』 6, 1983, 325쪽.

필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번역은 반역이라고 단언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역은 원서의 1/16에 불과하기에 작가의 의도 보다는 즐거리 파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 글을 빼앗은 나라이다. 그런데 일본어로 된 글을 한국어로 바꾸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번역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한다. 번역은 원서의 1/4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번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모국어의 마력을 깨닫게 되고,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국어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재정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970~80년대 교지에 게재된 번역 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1970~80년대 교지의 번역 문학

본고는 1970~80년대 교지에 소재한 번역 문학을 파악하기 위해 624권<sup>5)</sup>을 검토했으며, 연도별로 파악한 번역 문학 편수와 통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연도별 번역 문학 통계

연도	조사대상 권수	번역 시 편수(권수)	번역소설 편수(권수)	번역수필 편수(권수)	번역희곡 편수(권수)
1970	27권	2편 (2권)	6편 (4권)		
1971	23권	3편 (2권)	4편 (3권)		
1972	15권	8편 (4권)	3편 (3권)		
1973	29권	3편 (1권)	2편 (2권)		
1974	29권	8편 (3권)	1편 (1권)		
1975	25권	2편 (2권)	12편 (3권)	1편 (1권)	1편 (1권)
1976	21권	1편 (1권)	3편 (1권)		1편 (1권)
1977	22권	4편 (1권)	3편 (2권)		
1978	26권	8편 (5권)	2편 (2권)	1편 (1권)	

5) 1970(27권), 1971(23권), 1972(15권), 1973(29권), 1974(29권), 1975(25권), 1976(21권), 1977(22권), 1978(26권), 1979(28권), 1980(23권), 1981(43권), 1982(39권), 1983(47권), 1984(60권), 1985(37권), 1986(27권), 1987(38권), 1988(29권), 1989(36권).

1979	28권	2편 (2권)			1편 (1권)
1980	23권	7편 (3권)	2편 (2권)	1편 (1권)	
1981	43권	18편 (6권)	6편 (3권)		
1982	39권	2편 (2권)			1편 (1권)
1983	47권		2편 (2권)		
1984	60권	3편 (2권)	2편 (2권)		1편 (1권)
1985	37권	1편 (1권)	2편 (2권)	1편 (1권)	
1986	27권	1편 (1권)	5편 (4권)		
1987	38권		1편 (1권)		
1988	29권		1(1권)		
1989	36권		3(2권)		
계	624	71편	64편	4편	5편

검토 대상 권수는 많았지만 번역 문학이 실린 교지는 많지 않았다. 외국어 학습의 과정에 있던 학생들에게 논문이 아닌 문학을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의 표를 보면 운율과 상징까지 번역해야 하는 시가 71편, 시보다는 분량이 긴 수필이 4편, 희곡이 5편 그리고 짧지 않은 소설이 64편이나 번역되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학생들의 번역은 해방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지만 위의 표1을 보면 1984년 이후는 거의 없다. 시의 경우 1987년 이후는 한 편도 없다. 조사대상 권수가 가장 많은 1984년의 경우 60권 가운데 3편은 번역 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37권 가운데 1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시는 번역되지 않고 소설만 번역된다. 번역 문학이 감소한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열된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교지는 1980년대 초중반부터 총학생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학생운동의 방향과 같은 노선을 걷는다. 1987년 전대협이 결성된 이후 반미·반제·통일 운동이 본격화 하자 교지의 구성도 사회과학이론, 강령해석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예도 사실주의 문학이론, 집단창작 등에 집중했다. 문학의 중요성이 감소했고 이는 창작문학의 감소로 이어졌다. 시의 번역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번역 문학과 창작문학의 변화를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지 『이화』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이화』 소재 창작문학 편수의 변화

계제지(발간연도)	목차 구분	문학	편수
『이화』 28(1973)		번역 시 3편, 서간문 1편, 번역단편 1편, 시 5편, 수필 8편, 단편 2편	20편
『이화』 30(1976)	이화문예란	시 6편, 수필 6편, 번역 1편, 희곡 1편, 단편소설 2편	16편
『이화』 39호(1985)	이화문학상	시 3편, 수필 1편	4편
『이화』 40호(1986)	이화문학상	시 1편, 수필 1편, 소설 2편, 번역 1편	5편
『이화』 41(1987)	이화문학상	시 1편, 수필 1편, 소설 1편	3편
『이화』 42(1988)	이화문단	시 2편, 소설 1편, 평론 1편	4편
『이화』 43(1989)	이화광장	시 1편, 소설 2편, 희곡 1편, 논문 1편	5편
『이화』 44(1989,11)	이화광장에	소설 1편	1편

위의 표2를 보면 1970년대 초에는 15편 이상의 창작문학이 실렸던 것에 비해 1980년대는 현격히 줄어든다. 『이화』 42호(1988)의 편집자는 “제7회 이화문학상에서는 응모작이 예년에 비해 적었고 입상작도 내지 못했습니다.”(344쪽)라는 내용을 게시하는데 응모작이 예년보다 적었다는 데서 학생들이 문학보다는 사회에 관심을 둔 시대, 감상적인 문학에 집중할 수 없었던 혼란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지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번역 문학 역시 문학이므로 같은 경향을 보였을 것이다. 결국 교지는 학생들이 발간했으므로 번역 문학 역시 학생문단과 연관이 있으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학생운동이 절정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번역문의 선택은 대학생들의 역사관, 사회관과 연관된다는 가정하에 번역 시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 3. 1970~80년대 교지 소재 번역 시의 특징

1970~80년대 교지 소재 번역 시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선정한 교지 624권 가운데 번역 시가 있는 교지는 38권이었으며 여기에 실린 번역 시의 편수는 다음 표3과 같다. 발행대학 서지는 뒤의 참고문헌에 밝혔다.

표 3. 번역 시가 있는 교지와 편수 (가나다순)

계재지	편수	계재지	편수
『개척자』 12, 1975	1편	『시와 산문의 밤』 22, 1980 <sup>6)</sup>	4편
『개척자』 15, 1978	1편	『시와 산문의 밤』 23, 1981	4편
『고향』 20, 1975	1편	『신구』 4, 1979	1편
『고향』 25, 1981	1편	『엔담』 4, 1976	1편
『공학회보』 22, 1982	1편	『연세』 12, 1978	1편
『고향』 1, 1970	1편	『외대』 13, 1978	1편
『녹원』 25, 1981	2편	『우석문화』 1, 1982	1편
『동국교양』 3, 1974	3편	『올레』 2, 1980	1편
『동국문학』 5, 1972	1편	『월계』 2, 1971	2편
『동방』 1, 1981	7편	『이화』 27, 1972	2편
『목화』 1, 1972	1편	『이화』 28, 1973	3편
『배바우』 4, 1972	2편	『이화문학』 15, 1985	1편
『백령사원』 3, 1984	1편	『이화문학』 4, 1972	2편
『서울여대』 2, 1970	1편	『이화문학』 8, 1977	4편
『서울여대』 4, 1974	3편	『이화문학』 9, 1978	2편
『숙대학보』 11, 1971	1편	『인문대 학예』 1, 1981	5편
『숙대학보』 18, 1978	3편	『큰들』 1, 1979	1편
『숙대학보』 20, 1980	2편	『학생회지』 18, 1974	2편
『숙대학보』 21, 1981	1편		총 71편

위의 표3을 보면 여자대학교에서 발간한 교지에 상당 부분의 번역 시가 실린 것을 알 수 있다. 여대 교지인 『녹원』, 『목화』, 『서울여대』, 『숙대학보』, 『시와 산문의 밤』, 『이화문학』, 『이화』에 36편의 번역 시가 실린다. 총 71편 가운데 50%가 넘는 번역 문학이 여자대학교에서 나온다. 여학생과 연관된 한국의 국어대학 여학생부에서 발간한 『엔담』 4(1976)의 1편까지 합하면 37편으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는 1950~60년대(정경은 2020: 87)와 같기 때문에 유의미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어느 시점까지 여학생들이 이공계보다는 문과에 많았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결과 여성 시인의 시가 자주 번역된다. 번역 시 71편의 구체적 서지사항은 다음 표4와 같다.

6) 『시와 산문의 밤』은 문학의 밤 자료집이지만 교지와 같이 창작문학과 번역 문학이 실려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4. 1970~80년대 교지 소재 번역 시 목록 (연도순)

원제목	원저자	번역제목	번역자(학과)	게재지
To His Coy Mistress	Andrew Marvell	수줍은 여인에게	현은혜(영문)	『서울여대』 2, 1970
황무지	엘리엇		김수길(교양학부 조교)	『교향』 1, 1970
My Loves is Like to Ice	Edmund Spenser		조무석(영문 3)	『숙대학보』 11, 1971
	빠블로·네루다	당신의 가슴은	임종빈	『월계』 2, 1971
The Daffodils	William Wordsworth	수선화	나박	『월계』 2, 1971
Poeme a la Mysterieuse	Robert Desnos	신비의 시	양재구	『배바우』 3, 1972
Le Bateau Ivre	아르푸르 랭보	취선(醉船)	권희유(불문3)	『이화』 27, 1972
(원제 없음)	한산	길	최수역(국문4)	『이화』 27, 1972
(원제 없음)		타콜의 기탄잘리에서	이동준(전임장사)	『목화』 1, 1972
Comme je suis un étranger dans notre vie	Philipe Jaccottet	나는 우리들 삶이 이방인이기에	김영복	『배바우』 4, 1972
The sorrow of Love	W.B Yeats	사랑의 슬픔	이미재(자수3)	『이화문학』 4, 1972
A Serenade at the Villa	Robert Browning	빌라의 정숙-독백체	윤유택(외교3)	『이화문학』 4, 1972
After Apple-Picking	Robert Frost	사과를 따고 나서	장일영(영문4)	『이화』 28, 1973
S'il avait su	Madame Desbordes-Valmore	진정 그가 날 알았더라면	민계숙(불문4)	『이화』 28, 1973
Lied von einer Insel	von Ingeborg Bachmann	섬의 노래	최은실(독문조교)	『이화』 28, 1973
寺	王維	절	이혜옥(국문3)	『서울여대』 4, 1974
The Collar	George Herbert	걸쇠	김선희(영문4)	『서울여대』 4, 1974
The Oak	Alfred Tennyson	참나무	박준배(영문)	『동국교양』 3, 1974
A Refusal to mourn the Death, by fire, of a Child in London	Dylan Thomas	런던에서 불타 죽은 아이를 슬퍼함을 거부함	권애숙(전자계산)	『동국교양』 3, 1974
Lay Your Sleeping Head, My Love	W.H. 오든	애인이여 잠든 머리를 놓혀라	이창배(학장)	『동국교양』 3, 1974
La Feuille	A.V. Arnault	잎새	편집실	『학생회지』 18, 1974
Dans les dois Gérard de Nerval	Gérard de Nerval	숲속에서	편집실	『학생회지』 19, 1974

蛙よ	萩原朔太郎 (하기와라 사쿠타로)	개구리어	지광현 (외국어교육3)	『개척자』 12, 1975
(원제 없음)	Alfred de Museet	슬픔	편집실	『고향』 20, 1975
un pauvre jeune berger	P. Verlaine	가난한 젊은 목동의 이야기	신현숙(프랑스 어교육3)	『엔담』 4, 1976
Frühlinger Seele	Georg Trakl	영혼의 봄	송남실(독문4)	『이화문학』 8, 1977
Une saison en enfer	Rimbaud	『지옥의 한 계절』 서시	조명희(불문4)	『이화문학』 8, 1977
London	William Blake	런던	김명겸(영문4)	『이화문학』 8, 1977
Poor women in a church	Seamus Heaney	도시교회의 가난한 여인들	김명겸(영문4)	『이화문학』 8, 1977
Sailing to Byzantium	William Butler Yeats	비잔티움 항행	서용득(동문)	『개척자』 15, 1978
I envy not in any moods	Alfred, Lord Tennyson	이를 못따르리	서준경(영문4)	『이화문학』 9, 1978
pour vivre ici	P. Eluard	이곳에 살기 위하여	조안나(불문4)	『이화문학』 9, 1978
Ode Secrète	Paul Valéry	은밀한 노래	이복실(불문3)	『연세』 12, 1978
To His Love	William Shakespeare	사랑에 부쳐서	이춘인(영문4)	『숙대학보』 18, 1978
Le Phenix	Paul Eluard	불사조	변희숙(불문4)	『숙대학보』 18, 1978
等你, 在雨中	余光中(위광중)	그대를 기다린다, 빗속에서	박경희(중문4)	『숙대학보』 18, 1978
(원제 없음)	Santi	영혼의 목소리	조용범 (이란어3)	『외대』 13, 1978
Tree at my window	Robert Frost	창가의 나무	권장하(축산4)	『큰들』 1, 1979
Trees	Joyce Kilmer	나무	손문삼(지적)	『신구』 4, 1979
變與不變	徐志摩(쉬지모)	변화와 불변	서승연(중문3)	『숙대학보』 20, 1980
Air Vif	Paul Eluard	생명에 찬 대기	이경재(불문3)	『숙대학보』 20, 1980
Song	William Blake	노래	안재경(이대3)	『올레』 2, 1980
Nebelland	Ingeborg Bachmann	안개의 나라	윤예령(독문4)	『시와 산문의 밤』 22, 1980
一笑	胡適(호적)	어떤 미소	이정옥(중문4)	『시와 산문의 밤』 22, 1980
The wild swan at coole	Yeats	쿨호수가의 백조	김애라(영문3)	『시와 산문의 밤』 22, 1980
Linivitation Au Voyage	Charles Baudelaire	여행에의 초대	고동옥(불문3)	『시와 산문의 밤』 22, 1980
Chanson De La Plus	Arthur Rimbaud	가장 높은 탑의 노래	이상우(불문3)	『시와 산문의 밤』 23, 1981
The Daffodils	William Wordsworth	수선화	송해경(영문1)	『시와 산문의 밤』 23, 1981

	張勳(장모)	바람 속에 나는	여혜경(중문2)	『시와 산문의 밤』 23, 1981
Liebeslied	R.M.Like	(번역제목 없음)	강남실(독문3)	『시와 산문의 밤』 23, 1981
Ich hab die Nacht geträumet		한밤에 꿈을 꾸었네 (독일민요)	이혁(독문3)	『인문대 학예』 1, 1981
The eagle that is forgotten	Vachel Lindsay	잊혀진 독수리	박희관	『인문대 학예』 1, 1981
雨ニモマケズ	宮沢賢治(미야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고양주(교수)	『인문대 학예』 1, 1981
自畫像	楚戈(추꺼)	자화상	김언하(중문3)	『인문대 학예』 1, 1981
Le cancre	J.Prévert	열등생	용희영(불문3)	『인문대 학예』 1, 1981
夜哭	焦菊隱(자오 쥐인)	밤의 울음	이정옥(중문4)	『숙대학보』 21, 1981
一片槐樹葉	紀弦(지션)	한 조각 회화나무 잎사귀	베영신(중국어4)	『동방』 1, 1981
(원제 없음)	나팔라이 수완나타다	지식인	이병도(태국어4)	『동방』 1, 1981
Ý Thơ	Thé Lữ(테 르)	詩	노영철(베트남어1)	『동방』 1, 1981
(원제 없음)	(작가 이름 없음)	취주가	박희중(이란어4)	『동방』 1, 1981
水の精神	丸山薫(마루야마 카오루)	수의 정신	박선희(일본어3)	『동방』 1, 1981
The Buried Life	Matthew Arnold	묻혀진 삶	방해성(영문4)	『독원』 25, 1981
Wie wenn am fertage	Friedrich Hölderlin	마치 축제일처럼	최명원(독문4)	『독원』 25, 1981
The Tables Turned	William Wordsworth	뒤바뀐 계율	오미경(외교3)	『고향』 25, 1981
To his coy mistress	Andrew Marvell	수줍은 여인에게	한상천(교수)	『우석문화』 1, 1982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Robert Frost	눈 내리는 밤 숲가에 멈춰서서	편집부	『공학회보』 22, 1982
독락원기	사마광	(번역제목 없음)	장재숙(한문교육3)	『백령사원』 3, 1984
(원제 없음)	Rainer Maria Rilke	(번역제목 없음)	이낙동(불문4)	『명륜』 1, 1984
Ma Boheme (Fantaisie)	Arthur Rimbaud	나의 방랑(환상)	임선옥(불문4)	『명륜』 1, 1984
Come, my Celia	Ben Jonson	오라, 나의 실리아	이선영(국문3)	『이화문학』 15, 1985
À celle dont ils rêvent	P.Elurd	그들이 꿈꾸는 것에게	심은지(불문4)	『독원』 30, 1986

### 3.1. 국가별 특성

어떠한 국가의 시가 선택되었는가는 시대별 관심 국가의 변화, 지도 교수가 유학한 국가, 교수의 전공 등과 연관될 것이다. 번역대상 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번역 시 고찰 이외의 시인에 대한 해설은 각 분야 학자들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번역 시의 국가별 분류를 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1970~80년대 번역 시의 국가별 분류

국가	시인 이름 / 괄호 안의 숫자는 편 수
영국 24편	앤드류 마벨, TS엘리엇, 에드문드 스펜서, 워즈워드(3), 윌리엄 블레이크(2), 에이츠(2), 로버트 브라우닝, 조지 허버트, 알프레드 테니슨(2), 딜런 토머스, 오든, 셰익스피어, 매튜 아놀드, 마이켈, 벤 존슨,
프랑스 17편	로버트 데스노트, 랭보, 필리프 자코테(스위스 불어권 시인), 마르셀린 데스보르테 발모르, 앙투안 빈센트 아르노, 알프레드 드 뤼세, 폴 베를렌느, 랭보(3), 엘뤼아르(3), 폴 발레리, 샤를 보들레르, 자크 프레베르
중국 11편	한산, 왕유, 여광중, 쉬지모, 호적, 장모, 자오 쥐인, 지셴, 추꺼, 사마광, 소동파
독일 8편	잉게보르크 바하만(2), 제랄드 드 네르발, 게오르규 트라클, 릴케(2), 민요, 헬덜린
미국 5편	로버트 프로스트(3), 조이스 킬머, 바첵 린제이
일본 3편	하기와라 사쿠타로, 마루야마 카오루, 미야자와 겐지
이란 2편	산티
기타	인도(타골), 칠레(빠블로 네루다), 태국(나팔라이 수완나타)

앞선 연구인 1950~60년대 교지 소재 번역 시의 시인이 속한 국가는 프랑스, 영미권, 독일, 중국(정경은 2020: 88) 순이었다. 이와 함께 위의 표5를 보면 전 시기와 비슷하다.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시인의 시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작가의 시를 선택했다. 1970~80년대가 전 시기와 다른 점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 시기에 비해 중국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1편 가운데 소동파(699~761), 왕유(699~759), 사마광(1019~1086) 등 오래전 시인 아니면 20세기의 인물로는 자오 쥐인(1905~1975) 외에 중국 본토의 시인은 없다. 나머지는 대만의 현대 시인 5명(장모, 쉬지모, 여광중, 추꺼, 지셴)이다. 대만의 현대 시인이 증가한 이유는 1993년 중국과의 수교로 단

절하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유지해 왔다는 것, 대만이 반공주의, 남북 분단, 독재정치 등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60~70년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군협지』나 『군웅지』 등으로 번역된 중국 무협소설 역시 대부분 대만 무협이었다. 대만 문단에서 모더니즘 문학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지센(紀弦, 1913~2013)의 『한 조각 회화나무 잎사귀』는 본토를 떠난 지 6년이 된 1954년 작품인데, 지센에 대한 역자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명은 路逾(노유)(1914~) 河北에서 출생, 그의 시는 제재가 풍부, 표현수법이 특수, 개성이 있고 작품의 변화가 많다. 1953년 혼자힘으로 시집지 『현대시』 창간, 1956년 현대시파조직, 중국 현대시단에 지대한 영향

- 역자해설, 『동방』 1, 1981, 221쪽.

위의 인용문을 보면 역자는 지센을 대만이 아닌 ‘중국 현대 시단’의 분류에 넣는다. 현재는 중국과 대만을 분리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1981년에는 중국과 대만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현대 시인이 부족한 이유는, 반공주의 정권하에서 중국문학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서 번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 사상서가 해금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서적과 사회주의 사상서가 번역된다. 『연세법학』 9(1988)를 보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편집위원회 도서 목록에는 『레닌1,2』, 『레닌』, 『레닌의 추억1』, 『레닌의 회상』, 『모택동 사상 연구1』 등 레닌과 모택동에 관한 책이 들어 있다. 반미 통일 운동이 대중화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및 중국조선족 문학의 번역이 붐(정중현 2015: 101)을 이뤘다. 그러나 교지는 사회주의권의 사상에 집중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번역 시가 감소했으므로 현대 중국 문학의 번역은 1981년 자오 쥐인의 시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본토의 현대문학보다는 대만의 현대문학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전 시기 유럽에 편중되었던 국가 외의 시가 번역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란, 칠레 등과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의 시가 1981년에 처음 번역되는데 이는 외국어대학 등 관련 학과가 있는 곳에서 주로 번역된다.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6년과 1982년에 각각 한국외국어대학과 부산외국어대학에 태국어과가 설치

되면서부터(김홍구, 이미지 2017: 298)이다.

외국어대학교 교지 『동방』은 당시 생존 시인의 시를 주로 번역한다. 여기에 실린 태국 여성 시인 나팔라이 수완나타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생몰 연도는 없는데 교지에 ‘현재’<sup>7)</sup>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당시 생존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일반 문단에서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전 한국어로 번역된 베트남 문학은 2편이었다. 이 시기에는 양국이 처한 식민지, 전쟁 등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이 문학번역교류에 영향을 주었다. 1975년부터 1992년까지는 양국의 외교 단절로 민간교류가 불가능했으므로 베트남 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베트남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유사한 남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 중역으로 번역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읽히는 것이 전부(김주영 2018: 88~89)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시인 Thé Lữ(테 르, 1907~1989)의 시가 번역된다. 테 르 역시 번역 당시 생존 시인이었다. 1930년대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은 독립운동의 실패와 많은 당파들의 탄생으로 사회와 정치에 변화가 생긴다. 이 시기 ‘자력문단’이 결성되어 특이한 경향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자력문단’의 멤버인 테 르는 ‘개인의 해방’ 및 ‘문학장과 언어의 혁신’(응웬티히엔 2009: 110~115)을 이끌어냈다. 『동방』에 실린 해설에서는 테 르의 약력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적어놓았다.

1907년 하노이의 타이족이 살고 있는 조그만 강 마을 출생, 낭만-상징주의 근대시파, <Tu-Lue>(자력) 문단에 참여, 1935년 유일한 시집 <May van tho> 출간, ‘시는 그의 재주이며 정수이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의 시는 유명, 작품으로는 「Vong va mau」(1934), 「천동신의 거리」(1936), 「담배꾸러미」 「레 풍통신원」(1941) 등  
- 「역자해설」, 『동방』 1, 1981, 224쪽.

이처럼 아시아권 문학이 새로이 등장한 반면 일본문학의 번역은 많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리카나 중남미문학은 번역에서 소외된다.

---

7) 태국 플라롱콘 대학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현 태국 모 대학에서 강의 중인 그녀는 태국 10대 여류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특히 그녀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 「짜오프라야 강에서 한강까지」라는 시를 썼다. 이 시는 1961년도 작품 - 「역자해설」, 『동방』 1, 1981, 222쪽.

### 3.2. 번역 당시 생존했던 시인과 두 번 이상 번역된 시의 시인들

1970~80년대 새롭게 등장한 시인은 생존 시인인 경우가 많았다. 해방 전에는 ‘타고르’와 ‘폴 제랄드’가 생존 시인(정경은 2020: 92)이었으며, 1950~60년대 생존 시인은 3명<sup>8)</sup>이다. 그리고 다음 표6을 보면 1970~80년대는 10명으로 늘어난다. 점차 생존 시인이 증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당대의 해외 문학을 접할 기회가 다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6. 번역될 당시 생존 시인

시인	생몰연도	번역된 해	번역 시
파블로 네루다	1904~1973	1971	「당신의 가슴은」
필립 자코테	1925~2021	1972	「나는 우리들 삶이 이방인이기에」
잉게보르크 바흐만	1926~1973	1973	「섬의 노래」
세이머스 헤니	1939~	1977	「도시교회의 가난한 여인들」
여광중	1928~2017	1978	「그대를 기다린다, 빛속에서」
장모	1930~	1981	「바람 속에 나는」
지센	1914~2013	1981	「한 조각 회화나무 앞사귀」
자오 쥐인	1905~1975	1981	「야곡」
나팔라이 수완나타다	?	1981	「지식인」
테 르	1907~1989	1981	「詩」

1960년대 이후는 학생들의 번역이 먼저 있고 나중에 기성 출판사에서 시집이 번역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당시 기성 잡지와 비교해 봐야겠지만 연구의 방향이 방대해지므로 교지와 역시집 만을 비교해보았을 경우, 위의 표에서 네루다와 자코테와 바하만의 시는 시집이 한국에서 발간되기 이전에 교지에서 처음 번역된다.

네루다(Pablo Neruda)는 1971년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그의 시 역시 1971년

8) 1955년 번역된 Stephen Spender(1909~1995), 1955년 번역된 Robert Frost(1874~1963), 1961년 번역된 Hermann Hesse(1877~1962).

번역 된다. 노벨상 수상 시인이기에 번역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임종빈이 번역한 「당신의 가슴은」은 원제목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네루다의 두 번째 시집 『스무 편의 사랑시와 한 편의 절망노래』(1924)에 실린 시이다. 한국에서는 『네루다, 시가 있는 명상 노트』(이종욱 1987)에 원 시집의 시중 17편을 번역해서 실었는데, 「나의 마음을 위해서라면」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면 『월계』 2(1971)에 실린 시를 첫 번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사망한 필립 자코테(Philippe Jaccottet, 1925~2021)의 시 「나는 우리들 삶이 이방인이기에」는 1972년 번역되었는데, 그의 첫 시집 『올빼미(L'effraie)』(1953)에 실린 시이다. 당시에 또 그리고 현재까지도 번역된 시집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바하만의 시는 1973년 교지에서 처음 번역되었고, 『잉게보르크 바하만 연구』(이병애, 삼영사, 1982) 이후 시선집 『소금과 빵』(차경아 역, 청하 1986)이 발간된다. 그리고 꾸준히 시집이 출간된다.

생존 시인의 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과 역시집이 나오기 전에 학생들의 번역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기성 번역계와 학생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기성 문단의 문학잡지에서 외국 시인의 시를 소개하기도 하였고, 졸업한 학생들이 기성 번역계로 진출해서 학창 시절에 번역해본 시인들을 다시 번역하는 등, 역시집이 나오게 된 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학생들이 한 시인의 시를 두 번 이상 선택했다는 것은 그 시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시대 인식과 연관될 것이다. 다음 표7은 두 번 이상 번역대상이 된 시인이다.

**표7. 1970~80년대 두 번 이상 번역 대상이 된 시인**

시인 / 번역 편수	번역 시 / 번역 연도	해방 전 번역된 시	1950~60년대 번역된 시
잉게보르크 바하만 2편	「섬의 노래」(1973) 「안개의 나라」(1980)		
윌리엄 블레이크 2편	「런던」(1977), 「노래」(1980)		
테니스 2편	「참나무」(1974) 「이를 못 따르리」(1978)	「고백(古柏)」 (1931)	
릴케 2편	「Libeslied」(1981) 제목미상 (1984)		「아베로오네의 노래」(1963) 「탄식」(1965) 「가을」(1969)

워즈워드 2편	「수선화」(1971) 「수선화」(1981) 「뒤바뀐 계절」(1981)	「고독한 수확자」(1931) 「수선화」(1931)	「The Reaper」(1968)
에이츠 3편	「사랑의 슬픔」(1972) 「비잔티움 향행」(1978) 「쿨 호수가의 백조」(1980)		
랭보 3편	「취선」(1972) 「지옥의 한 계절 서시」(1977) 「나의 방랑(환상)」(1984)		
프로스트 3편	「사과를 따고 나서」(1973) 「창가의 나무」(1979) 「눈 내리는 밤 숲 가에 멈춰 서서」(1982)		「Nothing Gold Can Stay」(1955)
엘뤼아르 4편	「이곳에 살기 위하여」(1978) 「불사조」(1978) 「생명에 찬 대기」(1980) 「그들이 꿈꾸는 것에」(1986)		

위의 표7.을 보면 다른 시기에도 번역된 같은 시는 테니슨의 「The Oak」와 워즈워드의 「수선화」이다. 워즈워드의 「수선화」는 1931년, 1971년, 1981년에 번역된다. 워즈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몇 개의 단어가 새로운 단어로 바뀐 것 외에 시 전체의 이미지나 정조(情調)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간이 변해도 시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테니슨의 시는 시대에 따라 번역의 정조가 달라진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계관시인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 1809~1892)의 「The Oak」는 그가 80세에 썼으며 일생을 나무에 비유한 경구시이다. 1931년과 1974년에 번역되었으며, 독자에게 나무와 같이 힘 있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미래지향적 내용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독자인 교지의 특성에 어울리는 시이다.

청년이여! 로년이여! / 살기를 힘쓰라 / 저기 저 「도토리나무」와 같이 / 봄이면 생명의 새 움이 돌아 / 황금의 시절은 빛나나니 // 여름의 무성 그리고 / 가을이 또 다시 차저오며는 / 다시금 참된 / 곱고 아름다운 / 황금빛을 띄우나니 // 보라 그 앞은 어느듯 다 떠러졌다 / 그러나 그러나 / 저 「도토리나무」는 빈 들에 서있다 / 빨가벗은 그 줄기 그 가지에는 / 오히려 보이지않는 생명이 잠기었나니. 「끝」 - 테니슨, 「古栢(The Oak)」, 김종 역, 『연희』 8, 1931.

생을 누리되, / 노소의 인간들이여, / 저기 참나무 같이, / 봄엔 밝게 빛나게 / 생명체의 금과 같이 // 아름다운 풍성함 /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엔 / 가을답게 변하여, / 다시 은근한 빛의 금으로.... // 끝내 모든 앞은 그에게서

떨어지고 말았다. / 보라, 우뚝 서있다. / 줄기와 가지만이, / 적나라한 힘.

- 테니스, 「참나무」, 박준배 역, 『동국교양』 3, 1974. 215쪽.

1931년의 번역을 보면 본문에서는 도토리나무이지만 제목은 고백(古柏), 즉 오래된 측백나무이다. 참나무는 도토리가 달리는 참나무 무리의 여러 종류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영단어 ‘oak’와 ‘참나무’는 단어의 의미는 같지만 일컫는 품종이 다르다고 한다. 영단어 번역사나 일본어의 중역사(史)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제목의 변화이다. 1931년의 시는 생명의 힘을 보여주던 나무의 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힘차게 서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 암울한 식민지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힘을 주는 번역이다. 1974년의 시는 ‘생을 누리되’ 다음에 명확한 메시지가 없으며 희망의 어조는 1931년보다 강도가 떨어진다. 1974년의 시는 서술을 배제하고 명사형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번역자의 시에 대한 정의, 번역자가 시인인 경우 등과 연관되겠지만, 마지막 서술을 생략한 시의 종지인 ‘적나라한 힘’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잠기었나니’보다 더 강하고 비장한 느낌이다. 이 시가 번역된 1974년 한국에서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024명을 조사했고 203명을 구속했으며 183명이 복역했다. 이어서 인혁당 사건으로 240명을 체포했고 38명이 유죄선고를, 8명을 사형에 처했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살벌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탄압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번역의 어조 역시 이러한 결연함과 연관되어 보인다.

### 3.3. 학생운동과 번역 시의 경향

1950~60년대는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계열의 시가 주로 번역(정경은 2020: 99~102)되었다면, 1970~80년대는 사실주의 경향의 시와 저항 시인들의 시가 번역된다.

#### 3.3.1. 학생들의 시대인식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정권의 싸움 상대는 야당 보다는 학생들이었다. 해방 전 학생운동, 4월 혁명, 광주민중화운동, 6.10 시민혁명 등 주요한 역사의 변곡 점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일반학생들도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학생운동

이 보편화되었다. 1987년 전대협이 결성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발간된 교지는 대부분 정치적이며 이념적 주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변혁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본다. 당시 문학이 아닌 글에 인용된 외국의 시들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 두 예문은 번역 시 인용으로 시작한다.

누구보다도 심계를 지킨 그대는 누구보다도 심계를 어긴 그대이다. / 누구보다도 민중을 사랑한 그대는 누구보다도 민중을 경멸한 그대다. / 누구보다도 이상에 불탔던 그대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알고 있었던 그대다

- 아쿠타가와- 이정국(교육학3), 「인간해방을 위한 교육론」,  
『고대문화』 24, 1984, 97쪽.

피의 분출은 시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 실비아 플라스 - 편집자, 「서강문예」, 『서강』 16, 1986, 231쪽.

교육론에 관한 논문 전에 인용한 일본작가 아쿠타가와 로노스케의 구절은 1980년대 대학생들의 민중에 대한 생각과 이상과 현실 인식을 대변한다. 아쿠타가와와 교육자도 저항운동가도 아니었지만 『라쇼몽』(1915) 등의 소설을 통해 민중의 현실에 관심을 두었다. 위의 『서강』 16호 편집자는 창작문학 부문인 ‘서강문예’를 일괄하는 서두에서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1932~1963)가 1963년에 쓴 시 「Kindness」의 “The blood jet is poetry, There is no stopping it.” 일부분을 인용한다. 실비아 플라스는 혁명가나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이 부분에서의 피가 혁명의 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혁명의 시기였던 1986년 무렵의 학생들에게 비장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학생들의 사회 인식에 따른 외국 문학 선택 경향은 부조리극과 브레히트에 대한 관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조리극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절망과 혼동과 불안 속에 갇힌 존재들을 주로 그린다. 학생들은 「트리스트럼 샌디의 부조리주의적 비전」(『홍익』 24, 1982)과 같은 논문을 썼으며, 마틴 애슬린의 「부조리극이란 무엇인가」(『홍익』 24, 1982) 같은 논문을 번역한다. 그리고 부조리극의 경향을 가진 이오네스코의 희곡 「공백(La cune)」(『운현』 13, 1982)을 번역한다. 학생들이 부조리극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구조의 모순으로 부조리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권위주의 정권과 당대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을 은유와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조리극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비판적이며 혁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극작가로 평가받는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브레히트(1898~1956)와 그의 비유극에 관(9)을 보인다. 브레히트는 마르크스주의적 사상과 변증법적 인식으로 작품을 썼으며, 그의 비유극은 대중들에게 마르크스이념을 교육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의도와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관객을 교훈할 수 있고 처한 세계의 모순을 통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당시 각 대학의 축제나 학술제 무대에 브레히트의 연극작품을 올렸다. 학생들은 브레히트의 문학에서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전체주의적 상황을 추출해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창작 희곡에서도 발견된다.

형사 1: .이건 자네가 쓴 시인 것 같은데 특히 이 대목이 아주 감동적이더구만! “살인자가 치켜든 도끼 아래서 그들은 어쩌구 저쩌구” 하는,(후략)

인재 : 외국 시인의 시를 적어둔 것 뿐.. 베를톨트 브레히트, 독일 시인입니다. (중략) 지식인의 회의적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동범, 「수동아이」(희곡), 『전사』 1, 1988, 289쪽.

위의 인용문은 형사와 구치소에 갇힌 운동권 대학생 인재와의 대화이다. 인재가 브레히트의 시 중 일부를 적어가지고 다녔다는 데서 그 문구가 그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시는 브레히트의 번역시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김광규 역, 1985)에 수록된 「의심을 찬양함」이다.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의심을 찬양하되 이런 의심은 찬양하지 말지니 / 이 생각 깊은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 결단을 피하기 위해서 의심한다. (중략) 살인자가 치켜든 도끼 아래서 / 그들은 살인자 역시 인간이 아닐까 자문한다. (중략)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된 당신은 잊지 말아라. / 당신 옛날에 지도자들에게 의심을 품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 베르톨트 브레히트, 「의심을 찬양함(Lob des Zweifels)」(1939) 중에서

정권을 가진 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의심을 억압한다. 이러한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도자를 의심해야 한다. 학생들은 민중을 계몽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는 선구자 인식이 있었다. 옛 지도자를 의심해

9) 「비유극에 있어서 Bertolt Brecht의 영향과 그 귀결」(『효원』 30, 1987),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리얼리즘 소고」(『중앙문화』 22, 1989) 등.

야만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신군부를 나치의 파시즘과 동일시 했고, 브레히트는 나치의 파시즘에 저항했기 때문에 당대 파쇼적 통치에 저항하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었다.

### 3.3.2. 민중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시

1970~80년대 학생들은 낙후된 지역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공간은 홀트 복지원(『행당』 11, 1981), 나환자촌(『개신』 23, 1982), 난지도(『이화』 37, 1983), 강제 철거촌(『연세』 19, 1984), 탄광(『이화』 39, 1985) 등 이었다. 그리고 학생회 차원에서 농활, 야학, 소년원 봉사(『이화』 37, 1983)를 독려하였으며 점차 도시시민으로 시선을 넓혀간다. 당시 창작된 시 문학<sup>10)</sup>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중의 현실에 시선을 둔 시나 시인, 저항 시인이나 저항 시에 관심을 보인다. 1970~80년대 교지에 초대된 한국의 시인들은 삶과 문학으로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했던 시인들이었다. 이는 번역 시와 시인의 선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저항운동을 했던 시인, 사회나 현실의 부조리,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의 고난에 초점을 둔 시, 민중의 삶을 소외시키는 계층을 비판하는 시들이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로버트 데스노스(Robert Desnos, 1900~1945)는 저항의 시인이며,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한다. 교지에 실린 「신비의 시」는 저항 시는 아니지만 시인의 활동에 영향받은 선택일 수도 있다. 프랑스의 여성 시인 마르슬린 데보르드 발모르(Desbordes-Valmore, 1786~1859)는 이웃의 아픔을 대변하였으며, 그녀의 시는 정권에 대항하는 ‘무기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리옹 견직공 사건에 관한 시는 당시에 출판되지 못하였다(홍성숙 2008: 191~193)고 한다. 교지에 실린 「진정 그가 날 알았더라면」은 민중의 현실을 외면하는 ‘그’에 관한 시이다.

그가 상처입힌 한 영혼을 진정 알았더라면 /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볼 수 있었더라면 / 그토록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보일 수 있는

10)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 낮게 기침소리 들린다...병이 되어버린 슬픔을 가두는 / 고단한 언어들의 기침소리 - 이종현(임학4), 「귀가」, 『고대문화』 24, 1984, 344쪽.

작은 비에도 몸을 떠는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 아들들의 눈물이 세상의 명든 발등을 적서 흐르고 있는지 - 이기성(국문3), 「환절기」, 『이화』 42, 1988, 346쪽.

힘을 / 지닐 수 있었으려면, / 그의 마음은 변할 길이 없었네. (하락)  
- 마르슬린 테보르드 발모르, 「진정 그가 날 알았더라면」,  
민계숙 역, 『이화』 28, 1973, 215쪽.

위의 시에서 시인은 독재자가 민중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아픔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다. 영국 시인 딜런 토머스(Dylan Marlais Thomas, 1914~1953)의 「런던에서 불타 죽은 아이를 슬퍼함을 거부함」은 2차 대전 중 독일군 폭격기가 런던을 공습할 때 불타 죽은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고 쓴 시이다. 슬퍼하는 것 대신 분노하겠다는 의지를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상복도 입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권이 끝으로 향하던 1977년 발간된 『이화문학』 8에는 하층 민중을 묘사한 두 편의 시가 번역되어 있다. 199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셰이머스 헤니(Seamus Heaney, 1939~)가 쓴 「도시교회의 가난한 여인들」은 당시 민중이 구조의 모순에 체념하고 순응하도록 미혹하는 종교계와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의 순수함을 대조해서 지배계층의 악함을 부각한다.

(전략) 그들은 매일 이와 같이 성스러운 이곳에 무릎을 / 꿇는다. 황금빛  
성체함, 제단의 레이스, / 대리석 기둥들, 그리고 서늘한 그림자들이 / 그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어둠 속에서 / 희뿌연 그들 이마의 주름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 셰이머스 헤니, 「도시교회의 가난한 여인들」,  
김명겸 역 『이화문학』 8, 1977, 45쪽.

위의 시에서 시인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자본과 권력 앞에서 나약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계층에게 따뜻한 시선을 준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런던」은 『경험의 노래』(1794)에 수록된 시로서 18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는 런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올개미 씹워진 거리를 걷는다 / 이 거리 근처에선 올개미 씹워진 텀  
즈강이 흐르고 / 내가 만나는 모든 얼굴에서 / 나약함의 흔적, 슬픔의 흔적을  
본다 // 모든 사람들의 울음소리 마다에서 / 모든 어린애의 공포의 울음에서 /  
모든 목소리, 모든 금지조치에서 / 나는 마음이 젖어낸 쇠사슬 소리를 듣는다.  
// 굴뚝 청소부의 울음이 어떻게 / 시켜면 교회들을 섬뜩케 하며 / 불운한 병  
사의 한숨이 / 피가 되어 궁중의 벽으로 흘러내리는지를 나는 듣는다 // 그러

나 특히 한 밤의 거리에서 나는 듣는다 / 젊은 창녀의 저주가 어떻게 / 갓난  
아기의 눈물을 말려버리며 / 결혼의 영구차를 역병으로 시들게 하는가를  
- 윌리엄 블레이크, 「런던」, 김영겸 역, 『이화문학』 8, 1977, 42~43쪽.

거리는 올라미에 묶여 있는 듯 부자유한 사람들로 넘친다. 나약하고 슬픈 사람들, 아이들의 공포스러운 울음들, 수많은 금지조치 아래 억압당하는 사람들, 역병으로 고생하는 하층민들, 어린 굴뚝 청소부 그리고 이와 반대편의 화려한 교회와 궁궐의 대조를 통해 민중의 비참한 상황에 눈감은 상층계급을 비판한다. 시인이 집중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놀라운 발전상이 아니라 발전의 미명 아래 희생당한 민중이다. 이는 그대로 한국의 상황으로 와서 당시 선(先)발전 후(後)보상이라는 구호 아래 희생을 강요당했던 한국의 민중으로 읽힌다.

독일의 시인 잉에 보르크 바흐만(von Ingeborg Bachmann, 1926~1973)의 시는 1973년과 1980년에 번역되었다. 바흐만은 나치의 파시즘으로 인한 고통스런 역사 체험을 자기 문학의 토대로 삼고(박진형 2011: 178) 이를 남녀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파시즘으로 확장(유현주 2010: 242)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안개의 나라」는 제목만으로도 당시 안개 속과 같이 혼미하던 시대 상황을 은유하는 듯하다. 「섬의 노래」가 실린 『이화』 28(1973) 발간 준비를 하던 당시에는 생존해 있었다. 번역된 시는 원 시의 일부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 그가 여름 내내 모았던 / 조개껍질로 만든 모자를 /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 그리고 바람에 머리를 날리인 채 / 가야 합니다. / 그가 정성스럽게 마련했던 식탁을 / 바다에 밀어 넣고 / 잔에 남아있는 술을 / 바다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 그는 고기들에게 그의 빵을 / 쥐어하고 / 한방울의 피를 바다에 / 섞어야 합니다. / 그의 칼을 파도에 잘 밀어 넣고 / 그의 구두를 물속에 / 가라 앉혀야 합니다. / 마음도, 닻도, 십자가까지도. (하략)

- 잉에 보르크 바흐만, 「섬의 노래」, 최은실 역, 『이화』 28, 1973, 219쪽.

위의 시에서 시인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놀다가 집으로 갈 때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부자들과 이러한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신도들을 비판한다.

1981년 『인문대 학예』 1권에는 5편의 번역 시가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비에도 지지 않고」, 「자화상」, 「열등생」, 「잊혀진 독수리」 등 은유와 상징으로 당

대 현실을 비판하는 시들이 있다. 아래 시 「비에도 지지 않고」는 자신을 방해하는 어떠한 조건에도 지지 않고 민중에게 가까이 가서 돕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비에도 지지 않고 / 바람에도 지지 않고 (중략) 동쪽에 병 앓는 아이가 있으면  
/ 가서 돌보아 주고 / 서쪽에 고달픈 어머니가 있으면 / 가서 그 벗단을 저주며  
/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 가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해주고 (하략)  
- 미야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고양주 교수 역,  
『인문대 학예』 1, 1981, 280쪽.

바첼 린제이(Vachel Lindsay, 1879~1931)는 미국의 민중 시인이다. 번역 시 「잊혀진 독수리」는 미국의 정치인 존 피터 알트겔드(John Peter Altgeld, 1847~1902)를 추모하는 시이다. 알트겔드는 진보 운동의 선도적 인물로 직장의 안전, 아동노동 관련 법안들에 서명했으며, 1894년 풀먼사 파업 당시 군을 동원해 파업을 분쇄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전략) ‘이제 그를 묻었노라’고 생각하며 적들은 몰래 기뻐했다 (중략) // 침묵과 공포와 진실 속에 그대를 애도했던 사람들, / 빵을 잃은 과부와 길없는 소년, / 조롱받고 멸시받고 상처 입은 자, 절름발이와 가난한 자 / 오래도록 그대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제는 잊어버렸다. // (중략) 햇볕 높이 들었던 굳세고 슬기로운 이여! // 인류 속에 사는 것은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더욱 고귀할 지니.  
- 바첼 린제이, 「잊혀진 독수리」, 박희관 역, 『인문대 학예』 1, 1981, 279쪽.

소신있게 민중의 편에 서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저항한 학생들은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애도한다. 그는 굶주린 과부, 늙어버린 소년, 조롱받고 멸시받고 상처 입은 자, 절름발이와 가난한 자의 친구였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이면서 고귀한 자이다. 1950년대 이후 이승만 정권 7명, 박정희 정권 98명, 전두환 정권 98명, 노태우 정권에서 121명(민족민주열사 희생자(기념)단체연대회의 2005: 412~413)의 학생들이 지배권력의 고문, 탄압 등으로 알게 모르게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시기 알트겔드를 추모하는 시를 번역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J.Prévert, 1900~1977)는 현실 참여 시를 주로 썼다. 그의 시 「열등생」은 전체주의적 행동방식을 열등생이라는 상징으로 거부한다.

그는 머리로 아니오 라고 말한다 /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라고 / 선생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한다 (중략) 선생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 우등생 아이들의 야유  
 아래서 / 모든 색깔의 분필로 / 불행의 흑판 위에 / 그는 행복의 얼굴을 그린다  
 - 자크 프레베르, 「열등생」, 용희영 역, 『인문대 학예』 1, 1981, 277쪽.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전체의 논리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는 열등생이다. 그러나 모두가 ‘네’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는 용기있는 자이다. 이 역시 시대의 은유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3편이 번역되는데 그의 시는 종교적 상징과 은유를 구사하며, 명쾌한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자들은 프로스트의 시 「눈 내리는 밤 숲 가에 멈춰 서서」가 노동자로 대변되는 민중의 힘겨운 삶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을 느꼈지만, 힘을 결집해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백정국 2015: 43~47)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광주 민중항쟁 이후 학생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즈음 번역된 1982년 학생들의 해설은 정반대이다.

그가 나타낸 인물들은 실제적이며 땅과 흙에 찌들린 평범한 농민.. 도시화 산업화로 치닫는 뉴잉글랜드와는 상관없이 몰락해가는 벽촌에 처진 현대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수지 타산이 안맞는 농사일에 종사.. 고용살이들, 선조로부터 대대로 답습해오는 일을 맹목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는 사람들. 일년 내내 땅과 흙에 고생하며 일해야하면서도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는 소박한 사람들, 자연에 의해 혜택도 얻고 해도 받지만 여전히 자연에 순응해가며 사는 사람들, 문명의 발달을 쫓아 도시로 갔다가 일자리를 잃고 시골로 돌아오는 자들 등.. 눈내리는 겨울밤의 어두고 깊은 숲의 정경은 시인에게 현실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처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심미적인 도취는 일시적이고 현실에서의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 시인은 그 발길을 돌려 가야 할 길을 간다. 이렇게 프로스트는 현실에 충실하였으며 그러한 현실 속에 사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시인 자신의 생의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 편집부, 「Robert Frost의 작품세계」, 『공학회보』 22, 1982, 108쪽.

(시 중간의 ‘...’표시는 연구자가 임의로 생략한 부분이다.)

위의 예문을 보면 학생들은 프로스트가 농민, 도시빈민, 세습된 가난, 실직자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자연을 보며 감상에 젖기 보다는 현실에서 지켜야 할

의무, 즉 민중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발길을 돌려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프로스트가 현실에 충실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감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모습들은 대학생들의 공간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1980년대 학생들이 카페나 동아리 방에 낙서한 것들이 지금의 SNS처럼 돌아다녔는데 그 낙서 중의 하나는 “외롭다느니 공허하다느니 하는 감정은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요즘의 현실에서 가을이나 하늘을 바라는 것처럼 그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닐까”라며 현실을 앞에 두고 가을이나 하늘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는 것을 죄악처럼 여긴다. 문학적 정서도 버려야 하는 것이 되고 이는 결국 창작문학의 감소로 이어진다.

### 3.3.3. 저항과 반역의 시

학생들이 교지에 초대된 시인들은 당대 저항·민중 시인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던 문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이 “민중지향적 소망”(『한신』 3, 1987, 133)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자주 초대된 시인은 김지하와 김남주<sup>11)</sup>인데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시인은 네루다와 엘뤼아르이다. 네루다는 ‘민중과 함께한 전투적인 음유시인’(이종욱 1987: 260)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시인들과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프랑스의 시인 엘뤼아르(1895~1952)는 레지스탕스, 프랑스 공산당, 자유를 수호하는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의 시 「자유」(1942)는 한국 민주화운동 시기 특히 김지하 시인에게 의미가 있었다. 표절이라는 개념이 희미했던 시절,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는 「자유」를 김지하식으로 번역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신새벽 뒷 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중략) 숨죽여 흐느끼며 /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 민주주의여 만세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부분, 『마지막 살의 그리움』, 미래사, 1991, 44-45쪽.

11)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광운』 15, 1985), 김남주, 「자유」(『세브란스』 27, 1986), 김지하 「녹두꽃」(『녹두꽃』 1, 1987), 김남주 「그들의 죽음은 지나간 추억이 아니다」, (『해방광장』 1, 1988),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인하전기』 1, 1989),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인하』 25, 1989), 김남주 「삼팔선은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다」(『인하』 25, 1989) 등.

엘뤼아르의 시는 번역된 텍스트 가운데 한 사람의 시로는 가장 많은 「이곳에 살기 위하여」(1978), 「불사조」(1978), 「생명에 찬 대기」(1980), 「그들이 꿈꾸는 것에게」(1986) 4편이 번역된다. 엘뤼아르의 초기 시 「이곳에 살기 위하여」(1918)는 1940년에 출간된 시집 『열린 책』 1권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에는 시집 『이곳에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1974년 민음사에서 발간(오생근 역)되었다. 번역 시집의 표제가 되었다는 것에서 당시 한국의 상황에 이 시가 시사하는 의미가 컸음을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목의 시도 창작된다. 민중 시인 정희성의 시집 『저문강에 삼을 씻고』(1978)의 시 중 하나의 제목은 「이곳에 살기 위하여」이다. 정희성의 이 시는 자유 희구, 저항, 죽어서까지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 얼음, 겨울, 동토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증오할 것은 증오하자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엘뤼아르의 시는 한국의 저항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엘뤼아르는 「이곳에 살기 위하여」에서 프로메테우스적 소명, 개인의 사랑과 인류애, 시와 현실적 참여를 결합(조운경 2014: 56) 하고자 한다. 원래 5부까지 있는데, 교지에 실린 시는 그중 두 번째 부분이다. 보통은 첫 번째 부분을 번역하기 마련인데, 두 번째 부분을 번역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역자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II. 창가의 벽이 피를 흘리고 / 나의 방에서 어둠은 떠나지 않는다. / 나의 눈이 폐허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 나의 눈은 어둠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으리라. // 유일한 자유의 공간은 내 맘 속 깊은 곳 / 그곳은 죽음과 친숙한 공간 / 혹은 도피의 공간 // 온통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에워싸여 그곳을 / 상처 입어 움츠러든 날개가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새벽을 잡을 수 있을까 // 더 이상 어둠을 보지 않기 위해 나는 / 유일한 빛을 잃어버려야 한다. // 밤은 내 위에서만 열리고 / 나는 불확실한 인생의 기슭, 그리고 / 열쇠이다.

- 폴 엘뤼아르, 「이곳에 살기 위하여」, 조안나 역, 『이화문학』 9, 1978, 45-46쪽.

위의 시는 박정희 일인 독재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던 1978년 즈음에 번역됐다. 하늘로부터 인간들에게 불을 흩쳐다 주었던 프로메테우스는 민중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프로메테우스의 사명과 동일시 하였다. 민족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한

줄기 빛, 햇불<sup>12)</sup>, 역사변혁의 전위, 신새벽의 기수<sup>13)</sup>, 시대의 조타수<sup>14)</sup>, 무덤지기<sup>15)</sup> 등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밤, 어둠, 무덤, 침묵의 시대이며 자신들은 이러한 세상에 빛을 주는 프로메테우스였다. 민중을 위하다 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감옥에 갇힌 투사들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저항했던 이들은 기꺼이 프로메테우스로 저주를 받아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나 감옥은 독재의 어둠을 견고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공간이 된다.

엘뤼아르의 마지막 시집『불사조』(1951)에서 불사조는 죽음 안에 삶을, 삶 안에 죽음을 내포한 역설적인 새, 가장 낮은 잿더미에서 살아나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새다. 이는 전쟁과 죽음, 폐허로 가득한 잿더미 속에서 살아간 시인이 꿈꾸었던 삶(조운경, 288)을 표상한다. 다음 번역 시는 이 시집의 표제 시이다.

나는 당신의 길 위의 마지막 사람 / 마지막 봄 마지막 눈/ 죽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싸움 (중략) 하늘은 맑고 대지는 어두운데 / 연기는 하늘로 날아가 /  
 하늘은 모든 불을 삼켜버렸고 / 불길은 대지 위에 남아있다. / 불길은 마음의  
 구름이며 / 피의 모든 가지들 (중략) 어둠과 공포에 싸인 슬픔이 불타올라 /  
 타버린 재들은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꽃 피었다. / 우리는 언제나 노을진 하늘  
 로 등을 돌리고 / 모든 것은 새벽의 빛깔을 띠고 있다.

- 폴 엘뤼아르, 「불사조」, 변희숙 역, 『숙대학보』 18, 1978. 364쪽.

마치 자신을 태워 불이 된 불사조처럼 학생들은 자신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 믿기에 민중 속으로 들어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한다. 죽음은 다시 살기 위한 희생이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민중이 부활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희망<sup>16)</sup>한다.

민중의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직설적으로 노래 한 엘뤼아르의 시 「그들이 꿈꾸는 것에게」는 1986년 번역된다.

12) 『밀물』 5, 1987, 16쪽.

13) 『숙대학보』 26, 1988, 137쪽.

14) 『이화』 41, 1987, 11쪽.

15) 『숙대학보』 26, 1988, 326쪽.

16) 죽음 뿐인 시대에 나서 어둠에 빛을 뿌리며, 젊은 녀를 태워 청춘을 불사르며, 영원히 살기 위해 한 번 죽고 그 녀 한없이 살아 거듭 거듭 다시 태어나는 잡초 같은 생명의 뿌리로 질기고도 질긴 질경이 같은 사랑의 생명을 두레박질하는 끝없는 생명이어 마침내 부활해 오는구나 - 편집부, 「부활의 노래」, 『밀물』 5, 1987, 8-9쪽.

90만의 죄인들 / 50만의 정치가들 / 100만의 노동자들에게 / 잠의 지배자  
 여 / 인간의 힘을, / 지상에서 사는 행복을, / 그들에게 주거라. / 끝없는 어둠  
 속에서 / 고통을 잊게 해 줄 / 부드러운 사랑의 입술을 / 그들에게 주거라.  
 (중략) 생으로 가득찬 나라, / 포도주가 노래하는 나라, / 풍성한 수확이 있고  
 (중략) 나무 감옥 밖의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 악의 가장 나쁜 힘  
 을 알기 위해 / 그들은 희생당하였다. / 그들은 저항하였으나 / 상처만큼이나  
 미덕으로 가득 차. / 살아남아야만 하기에. // 휴식의 지배자. / 깨어남의 지배  
 자여. / 그들에게 자유를 주거라.

- 폴 엘뤼아르, 「그들이 꿈꾸는 것에게, 심은지 역, 『녹원』 3, 1986. 200~201쪽

죄인과 노동자를 합하면 190만 명, 정치가는 50만 명이다. 정치가들은 이 다  
 수의 민중이 지상에서 사는 행복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감옥 밖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생명  
 으로 가득 차야 하고,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것을 요구했던 이들은 희생당했다.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요구하는  
 시의 의미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1970~80년대는 민중에 관심을 가  
 지고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시대임을 번역 시의 선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연구대상 교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987년 이후 90년대 초까지 학생계는 문학보다는 과학<sup>17)</sup>을 더 중요시  
 했기에 문학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은 없어 보인다.

## 4. 나오며

문학 번역은 당대의 역사나 사회와 상당 부분 연관된다. 학생들은 기성 번역  
 계의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학생계가 위치한 상황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교지에 실린 학생들의 번역 문학은 당대 학생들의 인식을

---

17) 당시 교지의 내용을 보면, 과학적 변혁의 무기(『보은』 20, 1990, 197쪽), 과학적 한국사회의 변  
 혁운동(『해방선언』 1, 1990, 38쪽), 과학적 세계관(『고대문화』 32·33 합본, 1990, 361쪽), 과학  
 적인 이론(『이화』 45, 1990, 172쪽), 과학적인 전술(『숙대학보』 28, 1990, 259쪽), 과학적 정세  
 분석(『대전평론』 8, 1991, 70쪽), 과학적 무기(『대전평론』 8, 1991, 189쪽), 과학적 통일운동  
 (『개척자』 29, 1992, 11쪽), 과학적 사고(『개척자』 29, 1992, 95쪽) 등과 같은 과학적 사유에  
 대한 글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교지의 번역 시는 어느 시대나 유명 시인, 노벨상이나 풀리처상, 콩쿠르상 등 유명한 상 수상자들의 시를 선택했다. 오랫동안 선택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번역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구 유럽에 경도되었던 데서 동남아 국가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문학 번역은 부족했다. 여성 시인들의 시는 여대에서 번역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당대 생존 시인들의 시에도 관심을 보였고, 이전의 교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인과 작품들이 등장한다. 학생들이 먼저 번역하고 나중에 번역 시집이 발간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도교수의 영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해방 전, 학생들은 영미시에 관심을 보였고, 1950~60년대 학생들은 영미시, 그리고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계열의 시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했다. 1970~80년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외의 국가 특히 동남아 문학을 번역했다는 의의와 더불어 남미나 아프리카 등의 문학이 소외된 것은 여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정한 사조의 경향보다는 현실참여, 체제에 대한 저항, 민중에 대한 관심을 은유 혹은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저항적 활동을 한 시인의 시가 번역된다. 이 시대 학생들은 민중의 현실에 관심을 보였고 저항 시인들의 시를 즐겨 읽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번역 시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번역할 시를 선정할 때, 학생 번역자들은 사회의 불의를 비판한 시, 민중의 삶과 고난에 초점을 둔 시를 선호했다. 반공이 국시이던 시절이었지만 엘뤼아르, 네루다, 브레히트와 같은 마르크시스트 시인들의 시가 번역되었다는 데서 당시 학생들이 마르크시즘에 기울었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했고, 파쇼적 정권에 저항했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구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번역 시 선택에도 영향을 끼쳤다. 해방 전부터 이어져 오던 번역 문학은 1984년 이후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열된 학생운동의 영향이다. 당시 학생들은 문학보다는 사회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문학을 즐길 수 없었던 혼란한 시대였다. 그 때문에 교지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그리고 교지에는 통일운동, 혁명론, 자본주의 비판 등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번역 문학도 시대 상황, 번역작가들의 역사관이나 세계관과 연관된다는 것 알 수 있다.

번역이 완전한 문학 번역 혹은 개인적인 창작은 아니다. 그리고 문학적 소양과 언어적 소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언어만 능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

함에도 학생들은 외국어 교육이 시작된 시기부터 꾸준히 번역을 했다. 1970~80년대만 보더라도 짧지 않은 소설과 희곡의 번역이 번역 시의 편수와 비슷한 비율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생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방 전부터 시작된 연구를 이어 1980년대까지 대학생들의 번역 시 문학사를 일괄해서 정리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당대 기성 문단의 번역과 비교해야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 연구자에게 넘기며 이만 글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기초자료:

- 『개신』 23, 충북대학, 1982.  
『개척자』 12, 경상대학 학도호국단, 1975.  
『개척자』 15, 경상대학 학도호국단, 1978.  
『개척자』 29, 경상대학교, 1992.  
『경기』 17, 경기대학교, 1982.  
『고대문화』 24, 고려대학교, 1984.  
『고대문화』 32, 33, 고려대학교, 1990.  
『고황』 20, 경희대학교 학도호국단, 1975.  
『고황』 25, 경희대학교, 1981.  
『공학회보』 22,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1982.  
『교황』 1, 경희대학교, 1970.  
『녹원』 25,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학도호국단, 1981.  
『대전평론』 8, 대전대학교, 1991.  
『동국교양』 3, 동국대학교 교양학부, 1974.  
『동국문학』 5, 동국대학교 문리과대 학생회, 1972.  
『동방』 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1981.  
『목화』 1, 동덕여자대학 학생회, 1972.  
『밀물』 5,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1987.  
『배바우』 3,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1972.  
『백경』 15, 부산수산대학 학생회, 1974.  
『백령사원』 3,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도호국단, 1984.  
『보운』 14, 충남대학교, 1984.  
『새아름』 1, 대건신학대학, 1977.  
『서강』 16, 서강대학교, 1986.  
『서울여대』 2, 서울여자대학 학생회, 1970.  
『서울여대』 4, 서울여자대학 학생회, 1974.  
『숙대학보』 11, 숙명여자대학교, 1971.  
『숙대학보』 18, 숙명여자대학교 학도호국단, 1978.  
『숙대학보』 20, 숙명여자대학교 학도호국단, 1980.  
『숙대학보』 21, 숙명여자대학교 학도호국단, 1981.  
『숙대학보』 26, 숙명여자대학교, 1988.  
『숙대학보』 28, 숙명여자대학교, 1990.  
『시와 산문의 밤』 22,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1980.  
『시와 산문의 밤』 23,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1981.  
『신구』 4, 신구전문대학 학도호국단, 1979.  
『연담』 4, 한국외국어대학 학도호국단 여학생부, 1976.  
『연세』 12, 연세대학교 학도호국단, 1978.

- 『연세법학』 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1988.  
 『영광문화』 6, 대구대학교, 1983.  
 『외대』 13, 한국외국어대학교, 1978.  
 『우석문화』 1, 전주우석대학교, 1982.  
 『운현』 13, 덕성여자대학교, 1982  
 『울레』 2, 성균관대학교, 1980.  
 『월계』 2, 광운전자공과대학 총학생회, 1971.  
 『이화문학』 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문학회, 1972.  
 『이화문학』 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문학회, 1977.  
 『이화문학』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문학회, 1978.  
 『이화문학』 1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문학회, 1985.  
 『이화』 27,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학예부, 1972.  
 『이화』 28,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학예부, 1973.  
 『이화』 37, 이화여자대학교, 1983.  
 『이화』 39, 이화여자대학교, 1985.  
 『이화』 41, 이화여자대학교, 1987.  
 『이화』 42, 이화여자대학교, 1988.  
 『이화』 45, 이화여자대학교, 1990.  
 『인문대학예』 1,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학도호국단, 1981.  
 『저하』 21, 상명여자대학교, 1989.  
 『전사』 1,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1988.  
 『큰들』 1,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1979.  
 『학생회지』 18,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1974.  
 『한새벌』 27, 부산교육대학, 1989.  
 『한신』 3, 한신대학교, 1987.  
 『해방선언』 1, 충남대학교 철학과, 1990.  
 『행당』 11, 한양대학교, 1981.  
 『홍익』 24, 홍익대학교, 1982.

논문 및 단행본:

- 브레히트. (1985). 『살아 남은 자의 슬픔』 김광규 역. 한마당.  
 김주영. (2018). 「번역을 통한 문학교류의 불균형성에 대한 고찰」 『번역학연구』 19(4): 75-101.  
 김지하. (1991). 『마지막 살의 그리움』 미래사.  
 김홍구, 이미자. (2017). 「한국의 태국 연구 : 동향과 과제」 『아시아리뷰』 6(2): 297-336.  
 민족민주열사 희생자(기념)단체연대회의 외. (2005). 『끝내 살리라2』, 민족민주열사.  
 박진형. (2011). 「유작시집을 통해 살펴본 바하만의 고통의 시학」 『코기토』 69: 177-214.  
 백정국. (2015).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에서 엿보이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로버트 프루스트의 시적 양면성」 『현대 영미시연구』 21(2): 41-63.  
 응웬티히엔 (2009). 「한국 ‘구인화’와 베트남 ‘자력문단’의 시인 비교」 『한국현대문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110-127.

- 유현주. (2010).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단편집 <동시에>에 나타나는 여성의 자율성과 관계성」 『해세연구』 24: 241-264.
- 이종욱. (1987). 『네루다, 시가 있는 명상 노트』. 일월서각.
- 정경은. (2011). 「해방 전 교지 소재 서구 번역 시의 특징 고찰」 『번역학연구』 12(1): 211-238.
- 정경은. (2020). 「1950~1960년대 대학교 교지 소재 번역 시 연구」 『T&I REVIEW』 10(1): 81-109.
- 정종현. (2015). 「투쟁하는 청춘, 번역된 저항-1980년대 운동세대가 읽은 번역 서사물 연구」 『한국학연구』 36: 81-124.
- 조윤경. (2014). 「양차대전 사이의 시대와 엘리아르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56: 279-306.
- 최효은. (2016). 「번역사(翻譯史)와 번역사 연구의 개념」 『T&I REVIEW』 6: 31-48.
- 홍성숙. (2008). 「마르슬린 데보르드-발모르의 글쓰기」 『다문화사회연구』 1(1): 173-199.

This paper was received on 21 November 2021; revised on 30 November 2021;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1.

---

***Author's email address***

rainshoes@hanmail.net

***About the author***

Kyeongun Chung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he is interested in the translations and creative literature published in the journals of university schools.